

정혜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주임신부: 김원현 베드로 916-207-4806 본당부제: 김상돈 도미닠 916-580-8519 시목회장: 김도철 베드로 916-690-6555 연령회장: 최중구 안토니오 916-747-8431

ST.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사무실:916-368-9204

마르코 코린도 2서 오늘의 말씀 제1독서 제2독서 욥기 38:1.8-11 복음 5:14-17 4:35-41

두려움을 용기로...

복음서를 보면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 옵니다. 특히 마르코 복음서는 1장에서부터 많은 사람 이 주님께 모여드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모두 스승님 을 **찾고 있습니다."** (마르 1,37)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대부분 자기의 '갈망' 혹은 '바램'을 채우고 싶은 마음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의 근본에는 '두려움'이라 는 것이 자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린 삶과 죄에 짓눌린 삶에 대한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 등 말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도 이와 같은 배경의 말씀입니다. 거 센 돌풍이 불어 배가 난파 위기에 처했을 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앞에서 풍랑을 가라앉히고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 냐?" (마르 4,40)는 믿음이 부족한 제자들을 향한 안타 까움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결국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주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위로자 성령을 통해 큰 위안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상 우리 에게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 의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을 오히려 주님 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려는 용기로 바꿀 수 있는 은총 을 간절히 구해야 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배 12척 으로 왜군의 배 300척과 싸워 승리하였던 비결이 바로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었기 때문이었던 것처럼 말입 니다.(영화 "명량" 중에서)우리 역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직시하면서 오히려 더 큰 용기로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기회로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려면 기도를 할 수밖에 없 습니다. 우리가 그분과의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길은 기도뿐입니다. 사실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를 내지 못하면 제대로 된 기도를 바칠 수 없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기도하는 용기'를 강조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신뢰, 모든 것 을 할 수 있는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 기에는 기도하는 용기도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 도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는 소극적으로 중얼거리며 소심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소돔을 구하기 위해 하느님과 흥정했던 아브 라함처럼 '용감하게' 하느님과 겨루어야 합니다."

"무엇이든 들어주시는 예수님께 용감하게 기도하며 전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황님은 "하느님은 용기를 내 당신에게 솔 직하게 말을 걸어오는 그 모습 자체를 바라십니다." 며 솔직하게 그분께 다가가 청할 것을 권고하셨습니 다. 아울러 "기도의 응답이 없다면 기도의 횟수와 시 간이나 열심을 살펴보는 것에 앞서, 과연 내가 솔직한 마음을 하느님께 내어 드렸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2020년 5월 10일 산타 마르타의 집 주일 미사 강론 중에서) 이렇게 용기를 내어 하느님께 기도 를 드리고 나서는, 나머지는 그분께 의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은 바로 하느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화뿐입니다. 곧 바오로 사도께서 말씀하셨던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 (필립 4.7) 말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교우들도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를 꼭 받아 간 직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노력합시다.

일 자	전 례 력	미사시간	우리들의 정성(지난주)			
6월25일(화)	연중 제12주간 화요일	오후 7시30분	주일헌금 교 무 금	\$ 1,373.00 \$ 1,940.00		
6월26일(수)	연중 제12주간 수요일	오전 8시	성 물 방 자 선 비	\$ 24.00 \$ 4.00		
6월27일(목)	연중 제12주간 목요일	오후 7시30분	도네이션 성소후원금	\$ 1,000.00 \$ 6.00		
6월28일(금)	성 이레네오 주교학자 순교자 기념일	오전 10시				
6월29일(토)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	오후 7시30분	합 계	\$ 4,347.00		
6월30일(주일)	연중 제12주일	오전 9시 오전 11시	미사참례자	학생: 12명 성인:167명		
교무금 봉헌자	장석자(7-8)이정규(5-8)성두영.박용호(6-7)김도철(5-7)김숙남.안선미(5-6)이광훈(1-6)김호성(5)전우성.안기창(6)					

성당에 피엑스(PX)가 있다?

피엑스(Post exchange)는 군대에 있는 일종의 매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군인들은 성당에 피엑스가 있다고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뭔가를 떠올리셨을 텐데요. 맞습니다. 성당에서 쉽게 볼 수 있는기호를 두고 누군가 웃자고 만들어 낸 이야기입니다.바로 기다란 P의 기둥 아래에 작은 x모양이 합쳐진 형태의 기호. 힘든 군생활 중 마음을 달랠 군것질이 간절한 장병들이기에 이 기호를 보고 유머 삼아 한 말이었을 겁니다.

일단 이 기호는 '피엑스'(PX)라고 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엑스피(XP)도 아닙니다. 그리스어 '크리스토스'(XPIΣTOΣ)의 앞에 두 글자를 따서 만든 기호로 바로 '그리스도'를 뜻하는 기호입니다. 글자라기보다는 기호다 보니 '그리스도'라 불러도 되고, 사용한 글자대로 읽자면 '키'(X)와 '로'(P)를 합친것이기에 '키로'라 읽을 수 있습니다. 또 '키로십자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합친 기호를 모노그램이라 하는데요. 특별히 '키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모노그램을 크리스토그램(Christogram)이라 합니다. 크리스토그램에는 '키로' 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IHS' 혹은 'IHC'는 예수(IH Σ OY Σ)의 그리스어 표기의 첫 3글자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리스어에서 라틴어로 옮겨지면서 시그마(Σ)가 발음을 따른 S와 모양을 따른 C로 변형된 것이지요. 그리고 'ICXC'는 이콘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크리스토그램입니다. 그리스어 '예수 그리스도'(IH $\Sigma O Y \Sigma X P I \Sigma T O \Sigma$)의 약자입니다. 이콘에서 자주 사용되는 것으로도 알 수 있듯이, 동방교회에서 널리쓰인 크리스토그램입니다.

교회는 예로부터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 불렀습니다. 사실 '그리스도'가 처음부터 예수님의 이름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는 사제나 예언자, 왕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기름부음 받은 이'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메시아'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교회는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공경하는 고유한 칭호로 사용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최고의 임금이요, 사제이며, 예언자이시고, 사람이 되신 하느님이자 메시아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스승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 이십니다"(마태 16,16)라고 고백한 베드로 사도의모습이 바로 우리의모습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 혹시 어딘가에서 크리스토그램을 발견하셨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시는 것도좋을 것 같습니다.

(가톨릭 신문 이승훈 기자의 글을 인용했습니다.)

◉오늘의 미사지향 (미사신청:전례부장 916-990-6531/사무장 909-573-5322)**◉**

구분	지 향	봉 헌 자	구분	지 향	봉 헌 자
연	서정선 엘리사벳 영혼	서국은 바오로	생	김원현 베드로 신부님 영육건강	6구역원
연	김초지 마리아 영혼	송명자 아가다	생	김상돈 도미닠 부제님 영육건강	6구역원
연	이규청 제노비아 영혼	이호영 베드로		김원현 베드로 신부님, 김상식	최정신 데레사
연	더글라스 맥 윌리엄 영혼	김순녀 도미질라	생	바오로 신부님, 김상돈 도미닠 부제님 영육건강	
연	황준영 라파엘 영혼	최금주 요안나			
연	오영애 바울라 영혼	오소정 오수진	생	본당 신부님, 부제님 영육건강	김빅토리아
연	이승열, 안순희 영혼	김빅토리아	생	(생일) 박광식 요셉, 최민지	최정신 데레사
연	서향자 글라라 영혼	김용문 요한	~~ ~~	다니엘라 영육건강	최당선 내대사
생	(딸) 수지아녜스 와 가정 감사미사	김빅토리아	생	신흥재 야고보 빠른 건강 회복	요셉회
생	(딸) 데레사 와 가정 감사미사	김빅토리아	생	신흥재 야고보 빠른 건강 회복	오종신 토마스
생	본당 모든 교우분들 영육건강	이대원 베드로	생	조유원 요셉 영육건강	조윤희 밀지다

◉공동체 소식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 요한 17:21)

1구역(FE).2구역(FO).3구역(PC).4구역(NH).5구역(GF).6구역(RC).7구역(RT).8구역(NC).9구역(EG).10구역(DW)

<기도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1. 축하드립니다.

김원현 베드로 신부님 사제서품 24주년 및 영명축일 (6/29) 영적예물

주모경:2142회 묵주기도:6454회 화살기도:2056회 사제를위한기도:2016회 성체조배:428회

김상돈 도미닠 부제님 부제서품 10주년 (6/28) 영적예물

주모경:2142회 묵주기도:6184회 화살기도:2006회 부제를위한기도: 1394회 성체조배: 418회

신부님과 부제님의 영육건강을 위하여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념미사 및 축하식: 23일(주일) 교중미사중

2. 본당 사목회의

기간: 23일(주일) 오후12:40~ 엘리사벳방 사목위원들께서는 점심식사후 참석바랍니다.

3. 구역모임/단체활동

6구역: 23일(주일) 오전9시 미사후 김영준(댁)

(카풀 가능합니다)

사회복지부: 16일(주일) 노라플레이스 음식봉사

4. Christus 청년피정 참가

기간: 28일(금)~30일(주일)

장소: Vallombrosa Retreat Center

참가자: 최준우 루카, 최희연 스텔라, 윤지현 알퐁소

권오승 제임스, 김지훈 요셉 (이상 5명)

청년피정 참가자들을 위해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5. 새크라멘토 교구 종신부제 10주년 축하 모임

일시: 29일(토) 오후12시~4시

주관: 새크라멘토교구 장소:정혜엘리사벳성당 참석자: 소토 주교님 등 40명내외 (예상) 당일 본당에서 행사계획이 있는 단체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제28차 북가주 성령대회

일시: 8/10일(토) 오전8:30~오후6:00 장소: 새크라멘토 정혜 엘리사벳

강사: 박효철 베네딕토 신부님

한국가톨릭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 회장

주최: 북가주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

(지도신부:이종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참가비: \$25 (Check 발행시: KSCNC) 점심.저녁제공 신청/문의: 김은영 폴리나 (본당 성령기도회 회장)

7. 사랑의 급식 (여성부)

일시: 23일(주일) 교중미사후 친교실

메뉴: 잔치국수 금액: 무료

감사합니다(도네이션)

김상돈 도미닠 부제님: 떡

최재진 모니카 여성부장: 잔치국수

8. 감사합니다

도네이션(탁웨인 유가족): 본당 \$1.000.-

연령회 \$1.000.-

사랑의급식(8구역) 수익금: \$458 (도네이션포함)

사랑의급식 도네이션: \$200

(신부님 \$100, 손창식 돈보스코/데레사 \$100)

■ 스마일마켓쿠폰: 적극적인 이용 부탁합니다

(쿠폰이용금액의 15%를 도네이션 받습니다)

<< 주일학교 >>

주일학교 학생들은 방학기간 중에도 부모님과 함께 미사에 참여 바랍니다.

화답송 주님을찬 송하 여 라 그 분의 자 애 는 원하 시다 연중 제12주일 (6/23) 연중 제13주일 (6/30) 연중 제14주일 (7/7) 연중 제15주일 (7/14) 전례봉사 김아영 / 조용주 정미정 / 김진영 박문교 / 이해련 오민정 / 최금주 미사해설 권오승 김승제 장현철 복 사 김규철 / 장현철 최준우 / 송돈희 김병수 / 윤지현 김영준 / 김규철 천상의모후Pr. 샛별Pr. 천상의모후Pr. 샛별Pr. 헌금위원

주보제작: 사무장 박프란치스코 S (909-573-5322) E-Mail:bongjun5322@gmail.com

Samurai Sushi

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CA95742 신영후(토마스) 916-353-1112 samuraisushisac.com

1.2.3 Auto Body 정비

11357 Pyrites Way Suite B1, Rancho Cordova CA 95670 이호영(호영베드로) 916-366-0123

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

사업/상해/자동차/집/ 건강/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CA 95827 916-362-3300 (0) 916-475-3770 (C)

최병엽공인회계사

Byungyeub Choi CPA & Associates Inc.

9521Folsom Blvd.suit P Sacramento,CA 95827 (Butterfield Plaza#P)

> 최병엽(바오로) 916-363-2345

에어컨 수리

Air Conditioner Service & Repair

배용환(율리아노) 916-548-3278 916-362-3300

클라라 가정양로원

(Clara Care Home) 4665 Freeway Cir. Sacramento, CA 95841 김재열(스테파노)

김재열(스테파노) 김옥기(클 라 라) 530-771-7715 530-204-8878

Angel Garden Care Home

9873 Traveler Court Elk Grove, CA 95624 조영숙(도미니카) 530-886-9529 ycho11281128@gmail.com

- ▶ 케어홈 운영 상담 가능
- ▶ 구인광고
- 40세이상 여성으로 가사경험이 풍부하신 분 풀타임.파트타임 가능/ 시간당 \$20 / IRA가능(희망자)



#1 KOREAN CHICKEN 모임/생일 Catering 주문 환영



916-840-5535 조현화(헬레나)916-728-8585 KP market, #411

서은미 부동산



950 Iron Point Rd., #170 Folsom, CA 95630 서은미(안나) 916-600-1936

메리서 부동산 · 융자 · 재정서비스

- ·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및 자문
- · 주택융자/SBA/Commercial/Land
- ·은퇴-자산-재무설계/재산관리

서주연(마리아)

916-271-3671 · <u>maryseo@gmail.cpm</u> CALIFORNIA . GEORGIA . HAWAII

CATHOLIC FUNERAL CEMETERY SERVICES

(새크라멘토교구 직영)

2110 Broadway Sacramento, CA95818

한국세션 담당 Beda 916-840-2156 279-799-8572

장의사 W.F.Gormley&Sons Funeral Home

Family Owned Since 1897
Preneed Services
Available
916-443-6513

www.gormleyandsons.com 모든 장례예절 성실히 봉사

Hair Story Salon

9723 Folsom Blvd. #B Sacramento,CA 95827

> 헤어디자이너 정 린(클라라) 916-342-7072



*** **쉐 줄리아 공방** *** 수례 비누, 샴푸바, 캔들, 디퓨저, One day Class, Thank you gifts

(in the significant of the signi

박지은 (아델라) 626-617-2215



스마일마켓 쿠폰판매

※ 판매금액의 15% , 본당 재정 수입

여성부장 최재진 모니카 916-798-6577

성물방 이나숙 데레사 916-201-5630

양업토마스공동체 (리노공소) 후원

고추장.된장.도토리 국수.참기름.고춧가루 판매리노공소 기금마련을 위한 수익사업입니다. 공소부장(916-591-0179)